

다산포럼

정치인의 즐거움과 근심



송 재 소
성균관대 명예교수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잡룡’(潛龍)들의 물밑 움직임이 활발하다. ‘잡룡’이란 ‘주역’ 건괘(乾卦)에 나오는 말로, 성인(聖人)이 때를 만나지 못하여 물속에 숨어 있는 것을 가리킨다. 이 잡룡이 ‘현룡’(見龍)의 단계를 거쳐 하늘을 나는 ‘비룡’(飛龍)이 되면 성인이 전자의 지위를 얻어 천하가 잘 다스려지게 된다.

그러나 대선 경쟁에 뛰어들 이들을 과연 ‘잡룡’이라 불러야 할지 의문이다. 잡룡이라 부를 수 있으려면 이들이 성인이 될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현룡도 되고 비룡도 될 수 있는 것이다. 용은 신령스러운 동물이다. 그러기에 성인을 용에

비유한 것이다. 지금 대선 경쟁을 펼치고 있는 이들에게 용의 칭호를 붙여 주기가 조심스러운 것은 이들 개인의 인격과 능력을 검증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권에 대한 일반인의 강한 불신 때문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 기관의 통계에 의하면 직업별 신뢰도에서 정치인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정치인 하면 떠오르는 것이 거짓말, 뻔뻔함, 싸움질, 탐욕... 이런 말들이다. 오죽했으면 ‘정치가는 교도소 답장 위를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농담까지 나왔을까. 걸어가다가 자칫하면 교도소 안으로 떨어진다. 그러므로 정치가는 범자와와 일반인의 경계선에 있는 자라는 말이다.

이런 인상을 주는 정치인을 ‘용’이라 부르는 것은 너무나 과분하지 않은가? ‘주역’을 읽은 적이 없는 나의 아내는 라디오에서 ‘잡룡’이라는 말을 들으면 ‘잡룡’(雜龍)이 먼저 떠오른다고 했는데, 두 낱말의 발음이 비슷한 데에서 나온 것이지만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표출된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아무나 용에 비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가운데 이른바 ‘잡룡’ 중의 하나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언이 눈에 띈다. 그는 지난 9월 6일 북미 3개 도시 순방 중 뉴욕 현지 교민들과의 간담회에서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자신은 “천하의 걱정을 면저하고 천하의 기쁨을 나중에 한다”는 말을 좋아한다고 했다. 북송의 명재상 범중엄(范仲淹)이 한 이 말은 유명한 ‘악양루기’(岳陽樓記)에 나오는 구절이다. 관련된 부분만 인용해 본다.

“옛 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보니) 조정의 높은 곳에 있을 때는 백성을 걱정하고 먼 시골에 있을 때는 임금을 걱정하니 나아가도 걱정하고 물러나도 걱정한다. 그러니 어느 때에 즐겁겠는가? 그들은 반드시 “천하 사람들이 근심하기에 앞서 근심하고 천하 사람들이 즐거워한 후에 즐거워한다”고 말할 것이다.

“천하 사람들이 근심하기에 앞서 근심하고 천하 사람들이 즐거워한 후에 즐거워한다”는 말은 위정자가 지나야 할 가장 근본적인 덕목이라 할 수 있다. 진정 이런 자세로 정치를 한다면 국민으로부터 존

경을 받을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7월 5일 민선 6기 2주년 기자회견 때에도 이 구절을 인용했다. 비록 범중엄을 정나라 사람이라 했다가 북송 시대의 사람이라 하는가 하면 원문의 해석도 틀룩날쭉하지만 ‘용’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적어도 이런 자세를 갖는다는 것 자체는 바람직한 일이다. 박 시장이 실제로 이런 정신을 시정에 구현했는가의 여부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한 일이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9월 5일 G20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게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설득하는 자리에서 “넓지 않은 나의 어깨에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안위가 달려 있어 밥집을 못 잔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또한 말만으로는 범중엄의 정신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진정성과 실행이다. 진정으로 5천만 국민이 근심하기에 앞서 걱정하고 5천만 국민이 즐거워한 후에 즐거워하는 자세로 국정을 펼쳐 왔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자세로 국정을 펼칠 것인지 5천만 국민은 지켜볼 것이다.

교단에서



김 진 구
우산중학교 교감

하도 말이 많은 세상이라 말에 대해 재밋는 한두 가지를 말하고자 한다.

옛날 매주 학교 운동장 조화는 참 힘들었다. 추운 날이나 바람 부는 날도 빠짐이 없었다. 교장선생님의 지루한 연설도 고 통이였지만 용의 감사도 그에 못지않았다. 초등학교 시절 때 검사의 추억. 겨울철 잘 씻지 않은 손등에 때가 쌓여 트고 피가 뻗조하는데 이곳에 닿는 때는 매서웠다. 훈화를 너무 오래 하니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고, 서 있던 자리가 뻑작하니 녹아 두 발 크기의 물자리가 생기기도 했다. 지금 생각하면 이 운동장 조화를 어떻게 견뎠는지 한숨나기도 하고 아련하기도 하다.

어느 바람이 세찬 날 운동장 조화가 시

연설하고 있네

작되었다. 교장 선생님이 뜻깊은 교훈을 빠짐없이 전달하고자 준비해온 원고를 함주어 읽었다. 두 손까지 들어가며 한참을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었다. 연단에 놓아둔 원고가 바람에 날아가 버렸다. 그때 읽었던 원고 대목이 ‘돌이켜보면’이었다.

‘돌이켜보면’ 하고서 다음 원고를 읽으려는데 바람에 휩 날아가버린 것이다. 난 감한 순간이 흐르고 있었다. 잠시 주춤다가 교장선생님답게 사태를 수습하기 시작했다. 이제 원고 없이 ‘우리가 굳이 돌이켜볼 필요도 없지만’ 하면서 다음 말을 이어가려는데 마침 연단 바로 밑에 있던 선생님이 짚짜게 원고를 주워왔다. 또 다시 난처한 순간이 흐르게 되었다. 다시 연설 원본이 연단에 놓이게 되자 이번에는 ‘그렇다고 이 시점에서 아니 돌이켜볼 수도 없으니?’ 하면서 그날 조화를 마쳤다는 것이다.

돌이켰는지 안 돌이켰는지는 알 수 없는 일어로되 이처럼 남이 써준 원고를 읽다가 난처한 경우가 많다. 똑같은 자리에서 어떤 내빈 축사는 ‘백 사십 오만 광주 시민과 더불어’ 어찌고저쩌고 했는데, 다음에 격려사를 하는 분은 ‘백 오십만 광주

시민과 함께’라고 말하는 사례도 있었다. 지금은 자료도 많아 그렇지 않지만 교지나 매년 반복되는 행사글을 국어과 선생님께서 부탁하게 되는데 기일에 쫓겨 예전 원고를 날라 등 몇 군데만 바꾸기도 한다. 그러다가 행사 당일과 계절이나 날씨, 꽃 등이 맞지 않아 민망한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링컨과 처칠은 몇 가지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못생긴 얼굴이 공통이고,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과 수상을 지낸 것도 같다. 거둬된 실패와 짧은 명연설분도 그렇다. 처칠은 옥스퍼드 대학수 많은 청중 앞에서 ‘포기하지 말라’는 단 3번의 반복된 문장으로 유명하다. 또다른 말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한참 후에 처칠이 연단을 내려가자 그때야 연설이 끝난 줄 알고 열광의 박수를 보냈다고 한다.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도 그 내용과 함께 2분이라는 짧은 시간이 후세에 회자되고 있다. 게티즈버그 주민들은 남북군에 우호적이었고, 링컨 대통령을 그렇게 지지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분위기에서 전몰용사 추도식의 주된 관심은 당대 최고의 웅변가였던 에드워드 에버렛이 모아졌고 그는 하버드대 총장을 지낸 명연설

가답게 2시간 동안 열변을 쏟아냈다고 한다. 청중들은 얼마나 지루했고 그 다음 연단에 오른 링컨은 어땠겠는가. 오늘날 에버렛의 2시간 긴긴 연설은 간 데 없고 링컨의 2분은 남아 있다. 우리가 남 앞에서 서서 말할 때나 연단에 오를 때 항상 떠올릴 실화가 아닌가. 오죽하면 ‘연설하고 있네’라는 비꼬는 말이 나왔겠는가.

간혹 무순 단체나 어디에서 강사를 모실 때가 있다. 강사의 이야기가 재미없는 줄은 모르고 학생들만 떠든다고 한다. 본인 강의 알맹이 없는 줄 모르고 듣는 태도가 좋지 않다고 한다. 자신의 강의 지루한 줄 모르고 끝까지 아니 시간 지나서까지 한다. 정치하는 분들이 현실은 모르고 애만 쓰기 하면서 정치를 불신한다고 한다.

잔소리란 좋은 뜻의 말을 듣기 싫게 하는 말이라고 정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잔소리란 별로 의미 없는 말을 잘게 썰어서 길게 늘어놓는 말이다. 이 잔소리를 누가 좋아하겠는가. 잘 모르겠으면 자신의 말을 한번 녹음해 놓고 다시 틀어보면 된다. 참나미 삼천리 떨어질 것이다.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광주를 위한 장애인 체육 활성화

계적인 프로그램 운영, 우수한 지도자의 활동 등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으리라 믿는다.

“장애인은 문화·예술·체육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장애인 인권 헌장 제7조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동안 우리는 인식의 부족과 지지체를 포함한 사회의 무관심, 장애인 체육에 대한 소외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 생활체육에 관한 관심이 저조한 것이 사실이었다.

광주시의 체육진흥정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필자 또한 업무를 담당하고서야 비로소 얼마나 장애인에의 체육활동에 무관심했는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보치아’라는 운동 종목과 ‘로터’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하였고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 못했다. ‘보치아(boccia)’는 뇌성마비 중증 장애인과 운동성 장애인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임으로 공을 붙여서 표적구에 가까운 공의 점수를 합하여 승패를 겨루는 경기다. ‘로터’는 혼자의 힘으로 경기를 할 수 없어 걸어서 도움을 주는 생활보조인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으니 장애인 체육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자괴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최근 사회복지의 확대와 시민들의 사회참여가 증가로 인해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장애인들도 운동을 통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욕구도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 체육정책도 국제대회에서 메달 획득을 강조했던 전문체육 중심인 ‘체육 강국’에서 국민들의 삶의 질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체육선진국’시스템인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선순환을 이루는 구조로 과감히 전환되고 있다.

광주시도 이에 부응하기 위해 생활체육의 확대는 물론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민선 6기 이후 ‘더불어 행복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 체육예산을 꾸준히 늘리고 있으며, 지난해 5월에는 장애인 전용체육시설인 장애인국민체육센터를 전국 최초로 영주동 체육시설지구에 개관하여 장애인 체육인들의 오랜 숙원이 결실을 맺었다.

또한 ‘복지의 최고단계는 일자리 제공’이라는 가치 아래 장애인 직장 운동경기부인 탁구팀과 양궁팀에 이어 올해 6월에는 장애인 사격팀을 창설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뿐만 아니라 일자리 제공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넘어 이번 리우 패럴림픽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장애인 체육에 대한 인프라 확충에 힘입어 의미있는 변화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장애인 체

육인구의 증가이다. 올해 7월 기준 광주시 등록장애인 6만8404명 중 장애인 체육인구는 15.61%로서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광주시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욕구가 그만큼 높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평등한 인권도시, 따뜻한 복지도시로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서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고 본다.

광주시에서는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하여 장애 극복은 물론 스포츠 복지 구현, 나아가서는 비장애인과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통합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장애인 체육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는 장애인 선수들 중에서 생활고 등으로 운동을 중단하는 선수들에게 운동기회를 제공하고 일직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장애인 체육인재 육성사업과 100세 시대를 대비하는 국민체육 100사업 장애인부 사업을 새로이 추진하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를 추가로 배치하여 장애인이 체감하는 스포츠 복지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 시민들의 장애인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따뜻한 눈길,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이 함께 한다면 ‘보다 따뜻하고 넉넉한, 모두가 행복한 광주’ 구호가 아닌 머지않은 현실이 될 것이다.

社 說

현 정부 들어 더 줄어든 호남 지역 SOC사업

호남권의 철도·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수도권·영남권에 비해 크게 줄어든 사실이 또 다시 통계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총사업비 관리대상은 500억 원 이상의 토목 등 대규모 사업으로 지역발전 파급효과가 크다.

최 의원은 호남권 SOC 사업비 비율이 노무현정부 때 전체의 14.6%를 차지했지만 박근혜정부에 와서 4.4%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노무현정부에 비해 12.2%포인트나 줄어든 것이다. 이에 비해 서울·수도권 SOC 사업비 비율은 노무현정부 62.3%에서 박근혜정부 들어 72.5%로 10.1%포인트 늘었다.

또 연례적인 유지보수사업인 지방하천 총액계상 사업은 영남권이 2011년 30.2%에서 2015년 31.7%로 1.5%포인트 증가했지만 강원권 1.1%, 호남권 1.

0%, 제주권은 2.6%포인트씩 감소했다. 영·호남 지방하천 지원액 격차는 2011년 301억 원에서 박근혜정부 첫해인 2013년 675억 원으로 커져 ‘탕방’ 슬로건을 무색하게 한다.

여기에 2025년까지 추진하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호남권 신규 사업은 전혀 없지만, 수도권과 영남·충청권은 새 노선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이리니 호남을 노골적으로 홀대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우리는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과 호남고속철 1단계 개통으로 이용객이 증가하고 물류가 활성화돼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호남권 철도·도로망 확충은 국토의 고른 발전을 꾀하는 길이다. 정부가 지역 경제규모와 물동량만을 따져 SOC를 배분하는 자세로 일관한다면 불균형은 더 심해질 것이다. 당장 호남고속철 2단계사업부터 서둘러야 한다.

선출직은 비리로 구속돼도 월급 받는다니

2014년 6월 지방선거 이후 4명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범법 행위로 구속 기소됐다. 광역·기초의회에서도 9명이나 구속 기소됐다. 재판을 받는 기간 이들은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직위를 상실하기 전까지는 ‘국민의 혈세’를 꼬박꼬박 챙긴다.

국회의원 역시 구속 기소돼도 지방의원이나 자치단체장보다 더 많은 월세를 챙긴다. 이들이 받는 일반수당과 임법활동비 등 한 해 세비는 1억 원이 넘는데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감액 없이 모두 받는다.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은 비리로 구속 수감돼도 급여나 의정활동비를 보장받는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비리에 연루돼 구속되는 즉시 종장제 처분을 받아 급여가 끊기는 것과 대조적이다. 범법 행위가 인정돼 직위를 상실해도 구속 기간 받았던 국민 혈세는 환수하지 못한다.

최근 행정자치부는 구금돼 일하지

않는 광역·기초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을 차단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 지방의회가 관련 조례만 개정하면 되지만 이들이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으리라 기대하는 이는 별로 없다.

그러나 이미 서울시의회, 인천 남동구의회, 광주 광산구의회 등 3곳은 관련 조례를 개정, 구속 기소된 의원들에게 의정비를 주지 않는다. 피고인 신분으로 구속된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넘는데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감액 없이 모두 받는다.

‘무도동 무임금’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선출직 공무원들의 부당한 특권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마침 각종 범죄행위로 구속됐거나 회기 때 출석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을 정지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20대 국회에 상정돼 있다. 광역·기초의회 역시 국회의 처리 논지만 살필 게 아니라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지난 2010년 겨울, 아프리카에 망고 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 물론 직접 삼질을 해서 땅을 파고 심은 것은 아니다. 망고나무 심기 프로젝트를 맡고 있던 한 NGO(비정부기구) 취지에 공감해 나무 한 그루 값인 3만 원을 기부한 것이다.

같은 해 가을 베트남에서 열린 쌀 관련 취재 현장에서는 가난한 나라들의 식량 문제를 생각하게 됐다. 보다 나은 배나 말·옥수수 품종 육종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연구자들이 새삼 존경스러웠다. 얼마 후 인터넷 이곳저곳을 뒤적거리다가 (사)희망의 망고나무(이하 ‘희망고’, www.himango.org)를 알게 됐다. 남수단 톤즈 지역에 망고나무 묘목을 심고, 부모를 대상으로 목공과 재봉 교육을 하는 NGO였다.

그곳에서 망고나무는 ‘생명의 나무’였다. 한번 뿌리를 내리면 100년간 수확할 수 있는 식량원이자 소득원이기 때문이다. 또 느티나무처럼 시원한 그늘을 드리워 학생들의 배움터와 쉽터 역할을 하는 고마운 나무였다.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이는 이광희(64) 패션디자이너였다. 화려한 패션 세계와 낮

은 곳을 향하는 나눔 활동은 언뜻 어울리지 않는 듯싶다.

하지만 해남에서 평생 헌신적으로 봉사와 나눔의 철학을 몸소 실천한 이대표 부모님(이준목 목사·김수덕 여사)의 삶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희망고의 뿌리를 짐작할 수 있었다. 내가 기부한 망고 묘목이 남수단 어딘가에서 자라고, 언젠가 열매를 맺을 거라는 상상만으로도 마음이 훈훈해진다. 망고는 내 가슴속에서도 자라고 있다.

경기 불황으로 기부금 지출이 줄어든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종교단체나 시민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이 주요 항목인 ‘비영리단체로 이전’ 지출이 지난 2분기에 10만3577원에 그쳐 1년 전보다 3.1%(3261원)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고, 소득도 낮아지지 않고 있어 기부 등의 지출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대표는 “나눔은 거창한 게 아니라 소풍이다. 돈이 많아서 나누는 게 아니라 마음을 소통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나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 모두들 적으나마 기부를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다. /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월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지 부 220-0632 사 회 부 220-0642 사 회 2부 220-0652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문 화 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 220-0664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